



폭염야 물렸거라!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0일, 광주소방학교에서 오는 10월에 있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대비해 훈련하던 소방대원들이 휴식시간에 등목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이례적 폭염 왜?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  
녹지 줄어 도심 열섬까지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

광주·전남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이례적으로 발벌 끓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데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 지면까지 뜨겁게 달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때도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성 비도 높은 습도를 만들어내면서 짜증나는 폭염 더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도심 녹지가 사라지고 아파트 등 시멘트 건축물, 아스팔트, 자동차 등이 급증하면서 도심 열섬 현상까지 심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고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며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고온다습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목포를 제외한 전남 지역 22곳과 광주에 폭염특보를 발효했으며, 광주와 보성, 목포, 나주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고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21일은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대기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35도 분포를 보이겠다. 21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40mm다. 한편 광주는 올해 지난 5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폭염이 총 11일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폭염일수로, 지난해는 1일, 2015년은 2일, 2014년은 3일을 기록했다. /김현영기자 young@

## 추진단 강화된 위상 광주 문화수도 사업 본궤도 보훈처 장관급 격상 5·18 전국화·세계화 탄력

문제인 정부 조직개편...추진단 문화부 정식직제 편입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문화부 정식 직제에 편입돼 위상이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도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오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개한 ‘문화부 조직개편 추진 개요’ 자료에 따르면, 현행 7실(室)로 이뤄진 조직이 4실5국(局)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등 3개 실이 폐지되고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등 5개국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개편조직인 지역문화정책관실로 옮긴다. 지역문화정책관실은 지역문

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문화기반정책관을 개편한 조직이다. 추진단은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법적기구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도맡은 핵심기관이다. 추진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이 축소돼 문화부 별도정원으로 구성된 ‘미니 부서’로 전락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본부 정식 직제에 편입됐다. 단장의 직급은 기존 대로 과장급(4급), 정원도 현재와 같은 1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에서 요구해온 단장의 직급 승격과 인력 확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책사업’을 지역문화정책관실에서 관장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논란 가능성이 있다. 문제부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의 완료한 후 다음주 입

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0일께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 업무로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고급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람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소송전으로 변진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탁회사 3곳 광주시 상대 1단계 제안 접수 취소 소송

도시공원 일부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이 반대시사를 분방히 하고 있는 가운데 신탁업체들이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마찰·갈등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만든 지침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이 운영한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탁회사들은 소송에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암·마륵·송암·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면서 제16조 평가 분야 및 배정 기준 등에서 동일사업실적 또는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행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시행실적을 제외하고 시공실적만 인정할 경우 법률상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할 답변서 준비에 착수했다.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성, 여론 수렴과 함께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광주형 도시공원 대책’도 구상중이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도시공원의 보존이 아닌 고층아파트 개발에 치중해 작성된만큼 늦었다더라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근거해 공고를 냈으며, 소 제기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박+항공 711 718** ※선착순 한정 특가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아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아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포함사항: 무안~다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수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메리트, 싱글차지(3박 - 손목금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담·노음산**

**다낭·후에·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함사항: 무안~다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배낭수, 현지 가이드, 메리트, 비싼숙박(2박), 호이안 야경(기타투어)비행료, 무료주차, 차량배낭수, 가이드(2명)비행료  
•불포함사항: 개인 경비, 메리트, 싱글차지(3박 - 손목금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년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기간 1년 기준 ● 예약시 계약체서(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호텔, 식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